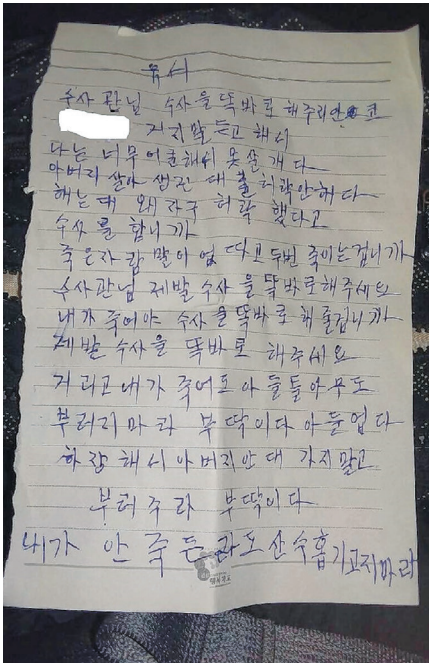


부모-자식 법정 다툼으로 몰고간 ‘몰래대출’ 분쟁



A씨의 딸 B씨가 병원에서 어머니의 소지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는 유서. B씨 제공

2015년 수사 증축 과정 대출·이자 등 부채 10억여원

父 “대출 신청한적 없다”…아들·법무사·촉협직원 고발

울산지법, 민사소송서 “재설정한 근저당 해제하라”

母 “최초 대출도 남편과 상관없어”…억울함에 농약 마셔

“수사관님 제발 수사를 똑바로 해주세 요.”

지난 20일 오전 9시 50분께 울산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농약을 마신 고소인 A(72)씨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병 원 중환자실에서 혈액 투석 등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A씨의 딸 B씨가 소 지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유서에 이 같이 적혀있었다.

B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A씨의 남편 명의로 된 담보물 3건이 근저당 으로 설정돼 9억원의 대출이 이뤄졌고, 2016년에는 기존 대출을 2건의 담보물

로 묶어 다시 근저당 설정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과 이자 등 부채는 총 10억여 원이다.

A씨의 남편은 지난해 2월에서야 이 같 은 사실을 알게 됐고 “직접 대출을 신청 한 적이 없다며” 촉협을 상대로 민사소 송을 진행했다. A씨의 남편은 민사소송 중인 6월 유명을 달리했다.

이후 A씨 등은 “남편이 수사 증축 등 을 위해 허락한 대출금 의 둘째 아들 C 씨가 과다하게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0월 울산지방검찰청 에 C씨를 고발했다. 또 대출 서류에 A씨

남편 대신 지장을 찍은 것으로 확인한 법무사와 대출을 승인해준 촉협 직원들 도 함께 고발했다.

울산지법은 촉협을 상대로 진행한 민 사소송 건에 대해 올해 5월 ‘2016년 담 보물을 묶는 과정에서 A씨 남편이 관여 한 정황이 없다’며 근저당 설정을 해제 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A씨 측은 최초 대출 과정에서 도 남편이 직접 추진한 부분이 아니라며 즉시 항소했고, 형사소송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소송보류 신청을 한 상태다.

그런데 형사소송 수사는 지금까지도 진척이 없어 노심초사 했고, 그러던 중 지난 20일 울산지검 민원실에서 당당 검사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2~3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설 명했다.

하지만 대출 신청 과정에서 A씨 남편

이 직접 신청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공 방 중에 있다. 특히 둘째 아들 C씨는 어 머니인 A씨 등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 는 입장이다.

C씨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관 련 서류도 모두 제출했다”며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계속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대출서류와 관련해 올해 2월 감정기관이 진행한 필 적감정에서 ‘A씨 남편의 이름이 기재된 부분은 자필로 추정된다’는 것과 ‘이름 외 기재 된 부분은 자필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울산지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으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 다”고 밝혔다.

김상아 기자 lawyer405@iusm.co.kr

위터파크 투자 사기로 2억 가로챈 울산지법 공무원 실형

위터파크 매입에 투자하라고 속여 2억 원을 받아 챙긴 50대 울산지방법원 공 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법원 공무원 A(51) 씨에 징역 1년 3개월을, 공범인 부동산 업자 B(50)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울산지법 내 회의실에서 피해자 C씨에게 “위터파크 를 공개 매입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 니 2억원을 투자하라”며 “50일 후에 낙 찰배당금을 받아 총 3억원을 돌려주겠 다”고 속여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당초 위터파크 낙찰 대금 95 억원의 80%인 76억원 상당을 은행으로 부터 대출받아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예대 비율(대출을 예금으로 나눈 비율) 의 문제로 대출이 불가능해 C씨의 투자 금을 받더라도 50일 만에 수익금을 포 함한 3억원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 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 2018년 11 월 공소제기 무렵부터 직위해제된 상태 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청렴하게 업무 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법원 청사에서 피해자를 속인 것은 더 욱 엄격하고 무겁게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또 현재까지 피 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액을 회복 해 주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지속 해서 탄원하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상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21일 울산교육청 기자실에서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온전한 휴가권·건강권 보장을 위한 울산교육청 전담대체인력 제도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성만 기자 smw00@iusm.co.kr

“학교급식노동자 휴가권·건강권 보장 전담대체인력 제도화하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회견

“1인당 평균 130~150명분 급식조리”

울산교육청 “대체인력풀 확보 노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 직본부 울산지부는 21일 오전 울산시교 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교육청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온 전한 휴가권·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담 대체인력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학교급식노동자는 1인당 평 균 130~150명의 급식을 조리하는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다. 이런 노동강도 는 2018년 서울대병원 등 주요공공기관 의 평균 급식인원 65.9명보다 무려 두배 나 높은 수준”이라며 “있으나마나한 수 준의 대체인력제도는 학교급식노동자 들의 쉼 권리와 건강할 권리를 침해하 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대체 인력의 인건비를 학 교 예산이 아닌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 고, 임용 대기자가 아닌 전담 대체 인력

풀을 시행하는 등 교육공무직 노동자들 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 리를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교육청은 “현재 교육 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공무직 행정 보조 및 교육공무직 대체인력풀을 구성 해 운영 중”이라며 “조리실 바닥 미끄 럽 방지 등 급식실 현대화를 시행해 사 고 방지에 노력하고, 현재 확보된 30여 명의 대체인력 외 충분한 대체인력풀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에 기자 yeda0408@iusm.co.kr

독감백신 접종후 사망 9명

무료 8명·유료 1명

최근 1주일새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을 접종한 뒤 사망해 보건당국이 정확 한 사인을 조사 중인 사례는 21일 현재 총 9명이다.

이 가운데 8명은 국가 백신접종사업 지원에 따른 무료백신을, 나머지 1명은 유료백신을 각각 접종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사망자 9명 가운 데 2명은 유가족이 정보 비공개를 요청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 서 “고인 두 명의 유족께서는 (백신 접 종) 이상반응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의견을 냈 다”고 전했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2명을 제외한 사망자 7명 가운데 4명은 70~80대로 고령층이다. 이들 7명은 각 의료기관에 서 독감 백신을 접종받고 12~85시간 뒤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첫 사망자는 인천에서 나왔다. 지난 16 일 오전 인천에서 17세 고교생이 사망 한 채로 발견됐는데, 14일 낮 12시 10분 게 지역 의료기관에서 ‘보령플루VIII테 트라’ 백신을 접종받았다.

이로부터 나흘 후인 20일, 사망자가 추 가로 발생했다. 전북 고창에 거주하는 77세 여성은 지난 19일 오전 9시 20분께 독감 백신 ‘보령플루VIII테트라’를 맞았 고, 22시간 뒤인 다음날 오전 7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망자는 생전에 고혈 압, 당뇨 등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서도 전날 오후 2시께 82세 남 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 남성은 앞

서 19일 오전 10시 ‘코박스인플루4가’를 맞았다. 생전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 로 확인됐다.

이날도 오후 2시까지 사망 사례가 4건 더 추가됐다. 이날 0시께 대구에서 78세 남성이 사망했는데 전날 정오 독감 백 신으로 ‘플루플러스테트라’를 맞았다.

오전 0시 50분에는 서울 거주 53세 여 성이 사망했는데, 앞서 지난 17일 정오 ‘SK바이오스카이셀플루4가’를 접종받 았다.

또 이날 오전 1시 11분께 제주에 거주 하는 68세 남성이 숨졌는데 앞서 지난 19일 오전 8시 40분께 ‘지씨플루코드리 밸런트’를 접종받았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89세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신고됐는데 이 남성은 19일 오전 10시 40분께 ‘보령 플루V테트라’를 접종받았다. 연합뉴스



차 부품 공장서 불 인명피해 없어

21일 오후 2시 31분께 울 산시 북구 염포동에 위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서 화 재가 발생했다.

불은 공장 내 파이프보관 창고와 공구보관 창고 사 이 벽면에서 시작됐고, 출 동한 소방대에 의해 1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인명피 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송재현 기자